

성경문답지(사사기1:1-21/2016-17) \_\_\_\_구역 성명:

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쭈었을 때 \_\_\_\_\_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다.(1-2)
2. 여호수아를 배출한 에브라임지파가 자청해서 맨 먼저 전쟁에 나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은 유다지파를 앞장세우셨다. 왜 그랬을까?(시78:9 참고)
3. 민26장에 나오는 2차 인구조사 때 두 지파의 인원은 유다 \_\_\_\_\_명 (22), 시므온 \_\_\_\_\_(14)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유다지파는 \_\_\_\_\_에게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고 요청했다. 왜 그랬을까?(참고로, 유다는 최대지파, 시므온은 최약체지파이다)
4. 첫 번째 전쟁-\_\_\_\_\_에서 \_\_\_\_\_명을 죽이고 그 왕 아도니 베섹을 잡아 손발 엄지가락을 끊음. 이에 아도니 베섹이 ‘\_\_\_\_\_이 나의 행한 대로 갚으셨다’고 했다.(4-7)
5. 그 다음 정복한 유명한 두 성의 이름이 무엇인가?(8,10)
6. 기랏 세벨은 \_\_\_\_\_이 취하였고 그는 약속대로 갈렙의 딸 \_\_\_\_\_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리고 악사는 출가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_\_\_\_\_을 요구하여 가지게 되었다.(11-15)
7. 모세의 장인은 \_\_\_\_\_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_\_\_\_\_지파 땅에 살았다.(16)
8. 여기 기록된 유다지파의 정복 전쟁 이야기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수15) 그런데 이 과거 이야기를 정복 전쟁 이야기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까?)
9. 유다지파가 산지의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_\_\_\_\_를 가진 골짜기 거민은 쫓아내지 못하였다.(19) 이 구절을 볼 때, 유다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문답지(사사기1:22-36/2016-18) \_\_\_\_구역 성명:

1.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_\_\_\_ 지파는 대체적으로 좋은 모범을 보였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_\_\_\_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19)

2. 이어서 요셉 족속이 \_\_\_\_을 치러 올라갔는데 먼저 그 땅을 정탐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성의 한 사람을 만나 그 성의 \_\_\_\_를 알려달라고 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3. 그 성을 칠 때에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주었고 그 사람은 \_\_\_\_ 사람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 이름을 \_\_\_\_라고 하였다.(22-26)

4. 요셉 족속이 수행한 전쟁은 과거 \_\_\_\_ 성 정복 이야기와 유사하다. 차이점이 무엇인가?(라합 가족과 비교해서) 참고로 헷 족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할 7족속 중에 하나이다.(신7:1)

5. 요셉 지파(므낏세와 에브라임)도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 므낏세 지파는 4성읍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27)

6.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 실패 지파들은 대부분이 북쪽 지역들이다. 이 땅들은 훗날 \_\_\_\_이 점령하기 전까지 가나안 사람들이 점유했으며(삼하 8:1),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어 반역하고 남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 지역들이다.

7. 아모리 사람들은 \_\_\_\_ 지파를 산지로 쫓아내고 결심하고 그 땅에 눌러 앉았다.(34) 결국 이 지파는 최북단에 있는 \_\_\_\_ 땅으로 옮겨가서 그곳을 치고 이름을 \_\_\_\_으로 고쳐 불렀으며(수19:47) 훗날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8. 야곱은 단을 \_\_\_\_과 같아서 말의 뒤통치를 공격하여 그 탄 자를 넘어뜨릴 것이라고 했고(창49:17) 모세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_\_\_\_로 비유했다.(신33:22) 단 지파는 1차 인구 조사 때 \_\_\_\_명(민2:26), 2차 인구 조사 때 \_\_\_\_명으로(민26:43) 유다지파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졌다. 그런데 왜 이들은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가?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가?

성경문답지(사사기2/2016-19) \_\_\_\_구역 성명:

1. 여호와와 사자가 \_\_\_\_에서부터 \_\_\_\_에 왔다.(1) 길같은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_\_\_\_를 행한 곳으로 요단강 서편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와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_\_\_\_라고 명령했던 곳이다.(수5:8,9,15)

2. 여호와와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거민과 \_\_\_\_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_\_\_\_을 헐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고 추궁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_\_\_\_가 되고 가나안의 신들이 \_\_\_\_가 될 것이라고 하셨다.(2-3)

3.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_\_\_\_를 높여 올렸고 그래서 그 곳을 \_\_\_\_이라 이름 하였다.(4-5) 뜻:눈물, 우는자들

4. 여호수아와 출애굽 1세대가 죽은 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_\_\_\_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_\_\_\_ 못하였다.(10)

5. 그 결과 여호와를 버리고 대신 \_\_\_\_을 섬기고 그들에게 \_\_\_\_하였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_\_\_\_하사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과 대적의 손에 파셔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와 손이 \_\_\_\_을 내리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그들에게 \_\_\_\_을 더하셨다.(11-15)

6. 대적들에게 고난당하는 이스라엘-1)원인: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2)결과-재앙, 압박, 괴로움 3)반응-\_\_\_\_(18) 4)하나님-\_\_\_\_을 돌이키심(18) \_\_\_\_를 세워 건져주심(16)

7. 범죄-재앙-회개-사사를 통한 구원-또 다시 범죄... 계속 반복 되는 사이클. 이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_\_\_\_을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이들 남겨진 열국을 통하여 여호와와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_\_\_\_ 하려 하셨다.(21-22)

8.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교훈, 명령이 있는가?

성경문답지(사사기3/2016-20) \_\_\_\_구역 성명:

1.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 내지 않으신 이유는(사실은,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_\_\_\_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_\_\_\_하기 위해서였다.(1)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테스트하신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남겨진 열국을 통해 이스라엘을 \_\_\_\_하시는 것이었다.
3.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남겨진 열국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_\_\_\_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자기 \_\_\_\_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_\_\_\_들을 섬겼다.(6)
4. 통혼과 우상숭배 이 두 가지 죄로 인해 메소보다미아에 \_\_\_\_년간 통치를 받던 중 하나님께 부르짖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_\_\_\_을 첫 번째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7-9)
5. 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자 이번에는 \_\_\_\_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는데 에글론이 \_\_\_\_과 \_\_\_\_자손들과 힘을 합하여 \_\_\_\_성읍(여리고-신34:3)까지 점령했다.(11-14)
6. 두 번째 사사로 하나님은 왼손잡이 \_\_\_\_을 세우셨는데 그는 모압 땅까지 건너가서 에글론을 살해하였다.(15) 왼손은 약함의 상징이다.
7. 세 번째 사사는 아낏의 아들 \_\_\_\_이다. 그는 \_\_\_\_로 블레셋 사람 \_\_\_\_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31) 삿1:33절에는 납달리 족속이 쫓아내지 못한 거민 중에 벤아낏(뜻-아낏의 아들) 족속이 있는데 아낏은 벤아낏 족속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삼갈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일 가능성이 많다.
8. 웃니엘, 에훗, 삼갈은 모두 부족함이 있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_\_\_\_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이고(10) \_\_\_\_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었다.(15) 과연 하나님은 \_\_\_\_것들을 택하사 \_\_\_\_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_\_\_\_것들을 택하사 \_\_\_\_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고전1:27)

성경문답지(사사기4/2016-21) \_\_\_\_구역 성명:

1. 이스라엘이 범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_\_\_\_\_왕 야빈의 손에 파셨는데 900개의 \_\_\_\_\_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다.(2-4)

2.원손잡이(에훗), 이방인(?) 출신(삼갈)에 이어 마침내 \_\_\_\_\_ 사사(드보라)까지 등장한다.(4) 남녀가 평등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것은 아니지만 드보라의 등장은 당시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남자 신앙인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3. 드보라-\_\_\_\_\_ 지파 소속으로 유일한 \_\_\_\_\_ 사사요(4) 동시에 선지자였고(5) 13,4명의 사사들 중 가장 신앙 있는 사사라 할 수 있다.

4. 드보라는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_\_\_\_\_에게 전쟁을 맡겼다. 드보라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_\_\_\_\_와 \_\_\_\_\_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_\_\_\_\_산으로 가서 야빈 왕의 군대와 싸우라고 했다.(6-7)

5. 드보라의 말을 들은 바락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그의 말은 신앙의 말일까? 불신앙의 말일까?

6. 바락의 말에 드보라는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가기는 하지만 그 때문에 네가 \_\_\_\_\_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9)

7. 시스라가 철병거 \_\_\_\_\_과 온 군사를 이끌고 \_\_\_\_\_강가에 모였다.(13) 이때 드보라는 바락에게 ‘\_\_\_\_\_, 이는 \_\_\_\_\_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_\_\_\_\_ 행하지 아니하시느냐?’하고 그를 독려했다.(14)

8. 전쟁의 결과 남은 자 한 명 없이 시스라의 온 군대가 칼에 얹드러졌다. 살아남은 군대장관 시스라가 \_\_\_\_\_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숨어들어갔지만 오히려 야일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9. 또 한 명의 여자-\_\_\_\_\_의 장인 호밥(이드로)의 종족인 \_\_\_\_\_족속 사람 헤벨의 아내 \_\_\_\_\_(11,17)

10.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고 \_\_\_\_\_하는 자를 통해 구원하셨고 \_\_\_\_\_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다.

성경문답지(사사기5/2016-22) \_\_\_\_구역 성명:

1.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_\_\_\_가 비었고 행인들이 \_\_\_\_로 다녔다. 대적들이 무서웠기 때문이다.(6) 이스라엘에 \_\_\_\_ (남자 지도자들)이 없어서 \_\_\_\_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_\_\_\_가 되었다.(7)

2. 백성들이 \_\_\_\_ (이방신)을 택하였기 때문에 \_\_\_\_이 성문에 미쳤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4만 명의 군사들에게는 \_\_\_\_와 \_\_\_\_이 없었다.(8)

3. 이렇게 절망적인 시기에 드보라는 자신의 지도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대신 이스라엘 \_\_\_\_의 헌신과 백성들의 즐거운 \_\_\_\_을 치켜세운다.(9)

4. 전쟁에 협조한 6지파들-아말렉을 물리친 \_\_\_\_, \_\_\_\_, \_\_\_\_ (서편 므낫세 지파의 땅)에서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_\_\_\_에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고 \_\_\_\_의 방백들이 함께 함(14-15)

5. 협조하지 않은 4지파들-르우벤: \_\_\_\_가에서 크게 결심하기를 \_\_\_\_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들의 \_\_\_\_ 부는 소리나 듣고 있음), \_\_\_\_ (동편 므낫세) 단: \_\_\_\_에 머무름(무역, 장사하기 바쁨), 아셀: \_\_\_\_과 \_\_\_\_에 앉아 자기 일만 함(15-16)

6. 열심히 특심이었던 2지파-스불론: \_\_\_\_을 무릎 쓰고 \_\_\_\_을 아끼지 아니함, 납달리:들의 \_\_\_\_에서 싸움(17-18)

7. 전쟁의 결과-가나안의 \_\_\_\_ (많은 왕들)이 \_\_\_\_물 가 다아낙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으나 \_\_\_\_을 탈취하지 못함(이기지 못함) 이들을 맞서 \_\_\_\_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싸워 주었고 \_\_\_\_강이 대적들을 표류시킴. 그래서 대적들의 \_\_\_\_가 빨리 달리고(도망하고) \_\_\_\_소리가 땅을 울림(20-22)

8.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_\_\_\_를 저주하라고 한다. 그들이 \_\_\_\_를 돕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_\_\_\_사람 헤벨의 아내 \_\_\_\_은 \_\_\_\_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23)

9. 노래의 결론-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이와 같이 \_\_\_\_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_\_\_\_가 힘 있게 돌음 같게 하시옵소서.(31)

성경문답지(사사기6/2016-23) \_\_\_\_구역 성명:

1. 또 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_\_\_\_\_의 손에 붙이심. 그들이 무서워서 \_\_\_\_\_, \_\_\_\_, \_\_\_\_\_을 만들어 거기 숨음(1-2)
2. 적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식물과 짐승을 다 빼앗아 갔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_\_\_\_\_이 심하였다.(4-6) 이렇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들을 \_\_\_\_\_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10)
3.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_\_\_\_\_을 얻게 하고 더 \_\_\_\_\_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다.(요10:10)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풍성함은커녕 두려워하고 산과 굴에 숨어 지내는 이유는 \_\_\_\_\_을 숭배하기 때문이다.(우상-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4.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무서워하여 밀을 \_\_\_\_\_ 틈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그를 ‘\_\_\_\_\_’라고 불렀다. 이는 그가 믿음이 큰 자도 아니고 큰 가문 출신도 아니지만 \_\_\_\_\_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11-12)
5.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_\_\_\_\_하라, \_\_\_\_\_ 말라고 하셨다. 이에 기드온은 단을 쌓고 그것을 \_\_\_\_\_이라 불렀다.(22-24)
6.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어려운 명령을 하셨다. \_\_\_\_\_의 단을 헐고 \_\_\_\_\_ 상을 짚고 여호와의 규례대로 한 \_\_\_\_\_을 쌓고 그 위에 \_\_\_\_\_년 된 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기드온은 낮에 하지 못하고 \_\_\_\_\_에 행하였다.(25-27)
7. 이 일이 있자 동네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 했고 이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동네 사람들에게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이 자기 아들 기드온과 더불어 싸우게 하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_\_\_\_\_이라 불렀다.(28-32)
8. 이 일 후에 미디안 연합군은 \_\_\_\_\_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 이에 4지파가 기드온을 따랐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위해 \_\_\_\_\_로 확인하려 하였다.(33-40)

성경문답지(사사기7/2016-24) \_\_\_\_구역 성명:

1. 기드온을 도우러 온 4지파(6:35)

2. 이들은 총 \_\_\_\_\_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두 번에 걸쳐 그 수를 줄이시기를 원하셨다. 이는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 이스라엘이 \_\_\_\_\_ 하기를 ‘\_\_\_\_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해서이다.(2)

3. 그 방법으로 1) \_\_\_\_\_ 자들을 먼저 돌아가게 하셨는데 돌아간 자가 \_\_\_\_\_ 명, 남은 자가 \_\_\_\_\_ 명이 되었다. 여전히 수가 많아 2) 두 번째로 개울가로 데려가서 시험하셔서 \_\_\_\_\_ 명만 따로 남기셨다.(4-8)

4.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자를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5.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가고 300명과 함께 남은 그 날 밤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9)

6. 2-3의 기적(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음식물을 태움, 양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지만 300명으로 \_\_\_\_\_ 같이 많은 적군과 해변의 \_\_\_\_\_ 같이 많은 약대를 보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 가까이 가라고 하셨다.(10-12)

7. 기드온은 그곳에서 미디안 한 병사가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_\_\_\_\_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와서 한 \_\_\_\_\_ 을 무너뜨렸다는 내용이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병사가 해몽하기를 그것은 \_\_\_\_\_ 의 칼날이고 \_\_\_\_\_ 이 미디안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신 것이라고 했다.(13-14)

8.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께 \_\_\_\_\_ 하고 300명을 3대로 나누고 양손에 \_\_\_\_\_ 과 \_\_\_\_\_ 를 들게 하고 그 안에 \_\_\_\_\_ 을 감추게 하였다.(15-16)

9. 300명의 군사가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소리 질렀을 때 \_\_\_\_\_ 께서 미디안 군대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19-22)

10. 전쟁 끝에 기드온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_\_\_\_\_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24)



성경문답지(사사기8/2016-25) \_\_\_\_구역 성명:

1. 300명 군사로 적군을 거의 물리칠 즈음에 기드온은 에브라임에게 전쟁 동참을 요청했고 에브라임은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의 두 적장 \_\_\_\_과 \_\_\_\_을 죽인 후(7:25) 기드온에게 와서 처음부터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항의를 했다.(1) 처음에는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에브라임의 항의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왜 이런 억지 항의를 하였을까?

2. 에브라임의 억지 항의를 받은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_\_\_\_가 아비에셀의 \_\_\_\_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하면서 미디안의 두 장군을 죽인 그들이 자기보다 낫다고 추켜세워 줌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피했다.(2-3) 잠 15:1을 적고 기드온의 행동을 평가해 보라.

3. 도망가는 적군을 쫓아가던 기드온이 \_\_\_\_과 \_\_\_\_사람들에게 음식 제공을 제의 했을 때 그들은 거절을 했다.(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 이에 기드온은 적군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_\_\_\_와 \_\_\_\_로 그들을 찢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4-17) 기드온의 행동이 옳은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가?

4. 도망 간 두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후 기드온은 자기 장남 \_\_\_\_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아직 어려서 두려워서 하지 못하자 자신이 죽이고 그들의 약대 목에 달린 \_\_\_\_형상의 장식품을 취했다.(18-21)

5.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_\_\_\_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했다.(22-23) 대신 백성들이 탈취한 \_\_\_\_를 달라고 해서 받아 그것으로 \_\_\_\_을 만들어 자기 성읍에 보관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시하여 결국 백성들에게 \_\_\_\_가 되었다.(24-27)

6. 기드온의 말로-많은 아내를 통해 \_\_\_\_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 세겟에 있는 첩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_\_\_\_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 지었다.(30-31)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또 다시 \_\_\_\_을 섬기고 기드온도 여호와도 기억하지 않았다.(33-35)

7. 처음 겁쟁이 기드온이 전쟁 승리 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그의 과장되고 불신앙적인 행동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문답지(사사기9/2016-26) \_\_\_\_구역 성명:

1. 기드온이 죽은 후 아비멜렉은 자기 외갓집이 있는 \_\_\_\_에 가서 기드온의 아들 \_\_\_\_명과 자기 사이에 누구를 지도자로 택할 것인지 정하라고 하였다. 이에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릿의 묘에서 은 \_\_\_\_개를 꺼내 아비멜렉에 주었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폭력배들을 사서 군대를 조직한 후 자기 형제 곧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였고 세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웠다.(1-6)

2. 아비멜렉의 대 학살 때 기드온의 말째 아들 \_\_\_\_이 살아남았는데 그는 \_\_\_\_산에 올라가서 나무 비유를 들어 아비멜렉의 죄를 고발하였다. 이 비유에 사용된 좋은 나무 3개와 나쁜 나무 하나가 무엇인가?(7-14)

3. 좋은 3 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청을 거절하였고 가시나무는 받아 들였는데 이 가시나무는 \_\_\_\_을 말한다. 이 비유 후 요담은, 아비멜렉에서 \_\_\_\_이 나와 세겜과 밀로 사람을 사를 것이요 또한 세겜과 밀로 사람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_\_\_\_을 사를 것이라고 했다.(20)

4. 아비멜렉이 왕이 된 \_\_\_\_년 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_\_\_\_을 보내셔서 서로 대적하게 하셨다.(23)

5. 에벳의 아들 \_\_\_\_이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은 \_\_\_\_의 아들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_\_\_\_의 후손(가나안 족속)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선동하였다.(28)

6. 가알의 반란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혈고 소금을 뿌렸다. 그런데 세겜 \_\_\_\_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당의 \_\_\_\_ (요새)로 도망을 갔는데 아비멜렉이 그들을 쫓아가서 도끼로 \_\_\_\_를 찍어 쌓아서 불을 질러 그들을 다 죽였다.(45-49)

7.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비멜렉은 \_\_\_\_ 성을 공격하여 그 성을 불사르려 할 때 한 여인이 \_\_\_\_을 던져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려 죽게 했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다.(50-55) 그리하여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8. 하나님의 심판-아비멜렉의 죄:형제 \_\_\_\_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_\_\_\_)에게 악을 행함. 세겜의 죄:아비멜렉의 죄에 동참함.(56-57)

성경문답지(사사기10/2016-27) \_\_\_\_구역 성명:

1. 소사사들-돌라:\_\_\_\_지파 사람, \_\_\_\_\_산지에서 \_\_\_\_년간 사사가 됨. 야일:\_\_\_\_사람, 아들 30명이 \_\_\_\_\_를 탔고, 성읍 30을 가짐, \_\_\_\_년 동안 사사가 됨(1-5)

2. 그 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_\_\_\_개의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_\_\_\_\_사람(요단강 동편 서해안 국가)과 \_\_\_\_\_사람(요단강 서편 국가)의 손에 파셔서 요단강 동편 길르앗 \_\_\_\_\_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을 \_\_\_\_년 동안 학대했고 \_\_\_\_\_자손은 요단강을 건너 \_\_\_\_\_, \_\_\_\_\_, \_\_\_\_\_지파를 쳤다.(6-9)

3. 이스라엘이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7나라를 언급하셨다. 어떤 나라들인가?(11-12)

4. 그렇게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를 \_\_\_\_\_치 아니하라. 가서 너희가 \_\_\_\_\_들에게 부르짖어 구원하게 하라’고 하셨다.(13-14)

5. 이렇게 말씀하신 본심이 무엇일까? 정말로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일까?

6.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주의 보시기에 \_\_\_\_\_대로 하십시오 마는 그래도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_\_\_\_\_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다.(15-16)

7. 행동이 동반된 회개를 하자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하나님은 마음에 \_\_\_\_\_하셨다.(16)

8. \_\_\_\_\_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_\_\_\_\_에 진을 치고 서로 마주 대하였다. 그러나 전쟁을 지휘할 장군(사사)가 없었다. 이 때 \_\_\_\_\_가 나서서 전쟁을 지휘하였다.(11:1)

성경문답지(사사기11/2016-28) \_\_\_\_구역 성명:

1. 입다-길르앗의 첩의 아들로써 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 뚝 땅에 거함. 이때 \_\_\_\_들이 그에게 모여왔다.(1-3)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어떤 자들이 몰려 왔는가?(삼상22:2)
2.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장관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말하면서 입다가 거절하는 듯하다가 그들의 \_\_\_\_가 되게 해 주는 조건으로 수락하였다.(7)
3. 입다와 암몬의 담판-암몬: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_\_\_\_, \_\_\_\_, \_\_\_\_까지의 내 땅을 취했으니 돌려 달라(13) 입다:이스라엘은 \_\_\_\_ 땅과 \_\_\_\_ 자손의 땅은 취하지 않았다.(15)
4. 암몬 왕과 입다의 진실 공방: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_\_\_\_과 \_\_\_\_ 두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돌아서 모압 땅 동편 \_\_\_\_ 저편에 진을 치고 헤스본을 공격하여(15,18) \_\_\_\_에서 \_\_\_\_까지와 광야에서부터 \_\_\_\_까지의 땅을 차지하였는데(22) 이 땅은 전에 아모리 왕 시혼이 모압을 치고 \_\_\_\_까지를 빼앗아 탈취한 땅이므로(민21:24-26) 이스라엘이 빼앗은 땅은 사실 \_\_\_\_ 땅이었다.(22)
5. 입다의 계속된 반론:‘이전의 모압 왕 \_\_\_\_도 이 영토 문제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이 땅에 거주한 지 이미 \_\_\_\_년이나 되었는데 돌려 달라고 하나? 이 문제에 대해 \_\_\_\_하시는 여호와께서 두 민족 사이에 판결 하옵소서’라고 함으로써 최후통첩을 했다.(25-27)
6.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자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자기를 맨 먼저 영접하는 자를 \_\_\_\_로 드리겠다는 허무맹랑한 서원을 하였는데 전쟁에서 돌아올 때 \_\_\_\_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그를 영접하였다.(30-34)
7. 입다는 사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면에서 정상적이지 않다. 어떤 것인지 찾아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성경문답지(사사기12/2016-29) \_\_\_\_구역 성명:

1. 입다의 희생적 수고로 전쟁에서 승리하자 \_\_\_\_\_ 사람들이 입다에게 전쟁에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길르앗 사람들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했다.(1-2) 이전에 \_\_\_\_\_에게도 자기들을 전쟁에 불러 주지 않았다고 역정을 냈다.(8:1)
2. 길르앗 1)조상:\_\_\_\_\_의 손자, 마길의 아들(민26:29) 2)거주지:요단강 동편 3)에브라임과의 관계:같은 형제인 므낫세와 형제 지파 4)에브라임 지파의 길르앗 평가: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_\_\_\_\_에서 도망한 자들(4)
3. 입다의 처신-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과 전쟁을 함. \_\_\_\_\_ 나루턱을 점령하고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_\_\_\_\_이라는 단어를 발음하게 해서 제대로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간주하고 죽임(6) (에브라임 사람들은 sh발음을 못해 섭블렛을 심블렛으로 발음함)
4. 에브라임이 과거 기드온 때도 희생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8:1) 이에 대해 시편 기자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_\_\_\_\_’고 했다.(시78:9)
5.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 초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전쟁이 끝날 때 즈음에 왜 불러주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며 슬그머니 참여 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
6. 에브라임은 입다의 말처럼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 끝날 때 즈음에 슬그머니 참여한 것 같다. 이들이 \_\_\_\_\_강을 건너 서편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기 때문이다.(5)
7. 이상한 입다-에브라임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 대해 기드온은 못 이기는 체하고 오히려 그들을 추켜세워 주었다. “에브라임의 \_\_\_\_\_ 포도가 아비에셀의 \_\_\_\_\_ 포도 보다 낫지 아니하냐?”(8:2) 뛰어난 담판 능력으로 암몬과는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입다가 이번에는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을 대하여는 \_\_\_\_\_명을 죽였다.
8. 이방민족간의 전쟁이 점점 \_\_\_\_\_ 간의 전쟁으로 사사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성경문답지(사사기13/2016-30) \_\_\_\_구역 성명:

1. 입다, 입산, 엘론, 압돈 후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_\_\_\_\_ 사람의 손에 \_\_\_\_년 동안 붙이셨다.(1)
2. 이때 하나님께서는 \_\_\_\_지파의 한 불임 여성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셨다.(2-3) 이와 비슷한 출생 이야기의 여인들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보라.
3. ‘범죄-징계-회개-구원(사사)’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에는 위의 4단계 중 없는(생략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1)
4. 위의 사실은 1)사사시대의 더 어두워진 영적 상태를 보여 줌과 동시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_\_\_\_\_을 동시에 보여 준다.
5.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1)\_\_\_\_\_와 \_\_\_\_\_를 마시지 말고, 2)\_\_\_\_\_을 먹지 말고 3)아이의 머리에 \_\_\_\_\_를 대지 말라고 했다.(4-5)
6.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는 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 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내의 말을 못 믿어서? 아니면 좀 더 확실한 것을 알고자?
7. 오늘 본문에는 같은 나실인 규례가 총 \_\_\_\_ 번 반복되었는데 매번 조금씩 차이가 있다. 생략된 것과 추가 된 것이 있다. 어떤 것인가?(4-5/7/14)
8. 마노아는 자기에게 말한 자가 \_\_\_\_\_인 줄을 몰랐기에 음식(염소 새끼)을 대접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_\_\_\_\_께 드리라고 하면서 이 제의를 거절했다.(16) 왜 거절했을까?
9.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_\_\_\_\_라고 말한 후(18) 반석에서 \_\_\_\_이 나와서 그 위의 소제물을 태우고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20) \_\_\_\_\_을 행하였다.(19)
10. 출15:11, 시139:6, 사9:6 등을 볼 때 위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3구절에 사용된 단어는 이 이름과 동일함)

성경문답지(사사기14-15/2016-31) \_\_\_\_구역 성명:

1.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_\_\_\_\_ 여인과 결혼하려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계획으로 \_\_\_\_\_계로서 나온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삼손의 이방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일까?(1-4)

2. 부모와 함께 딘나로 내려 간 후 포도원에서 \_\_\_\_\_를 만났는데 삼손이 \_\_\_\_\_에 크게 감동되어 맨손으로 그것을 죽였다.(5-6) 얼마 후 결혼을 위해 다시 내려갔을 때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생긴 \_\_\_\_\_을 취하여 먹고 부모에게도 주었지만 그 출처를 말하지 아니하였다.(7-8)

3. 결혼 잔치에서 삼손은 블레셋 축하객 30명에게 사자에서 취한 꿀 이야기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만들어 베풀고 결혼 각각 \_\_\_\_\_벌 내기를 하였다. 블레셋 친구 30명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그 답을 알아내어 잔치 마지막 날에 답을 했다. 결국 삼손은 \_\_\_\_\_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_\_\_\_\_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주고 부모 집으로 갔고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12-20)

4. 얼마 후 \_\_\_\_\_ 거둘 시기에 다시 아내를 찾아 갔을 때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안 삼손은 여우 \_\_\_\_\_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넣어 밭을 불태워버렸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_\_\_\_\_와 그 \_\_\_\_\_를 불살라 죽였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했다.(15:1-8)

5. 개인과 집안싸움은 결국 국가 간의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와 전쟁하러 몰려왔다. 결국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다.(명색이 나라의 사사인데 꼴이 말이 아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소리를 지르자 \_\_\_\_\_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 줄을 끊고 나귀의 \_\_\_\_\_를 가지고 \_\_\_\_\_명을 죽였다.(9-15)

6. 그 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사오나 이제 제가 \_\_\_\_\_ 죽겠습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땅을 쳐서 물을 내어 주셨다.(18-19)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7.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 그가 나실인 규례(포도주나 부정한 것 먹지 못함)를 어긴 예들을 찾아보자.(14:9, 10, 15:15)

성경문답지(사사기16/2016-32) \_\_\_\_구역 성명:

1. 두 번째 블레셋 여인-가사의 한 \_\_\_\_에게 간 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집을 에워쌌고 삼손은 밤중에 \_\_\_\_과 \_\_\_\_를 빼어 어깨에 멘 채로 도망쳐 나왔다.(1-3)

2. 세 번째 블레셋 여인-이번에는 이전의 두 여인과는 달리 \_\_\_\_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유대인, 그것도 나실인이 이방 여인들만 좋아하는 것은 분명 그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해 준다.

3.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각각 은 \_\_\_\_개씩을 주겠다고 하여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 낼 것을 부탁했다.(5)

4. 머리털의 비밀을 알려 주기까지 삼손은 들릴라에게 3 번을 속였는데 무엇으로 자기를 결박하면 힘이 사라진다고 했는가?(7,11,13)

5. 마지막으로 머리털의 비밀을 말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_\_\_\_이 되었다’는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에는 찢림이 없었을까?

6. 이전에 그가 힘을 발휘할 때마다 여호와와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기록이 4번 있었다.(13:25, 14:6, 9, 15:14) 16장에도 힘을 발휘한 것이 4번 나타나지만 이전과는 달리 \_\_\_\_이 그에게 임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다. 머리털을 밀린 후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_\_\_\_는 기록만 있다.(20)

7.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_\_\_\_의 임함이 그의 힘의 비결이었다. 긴 머리 또는 수건을 쓰는 것은 권위에 대한 전적인 복종의 의미이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것은 그 \_\_\_\_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는 것도 그의 \_\_\_\_ (남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전11:4-5)

8.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은 단지 개인이나 국가간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 \_\_\_\_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와의 싸움이였다.(23) 삼손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구한 것도 지극히 개인 복수를 위한 간구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함이 없이도 그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 \_\_\_\_명을 죽게 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삼손, 죽을 때에도 회개하지 못했다.



성경문답지(사사기17-18/2016-33) \_\_\_\_구역 성명:

1.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 일천 일백을 잃어버린 후 \_\_\_\_를 퍼부었는데 그것을 미가가 다시 찾아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아들에게 여호와와 이름으로 \_\_\_\_을 선포하고 은 \_\_\_\_으로 아들을 위해 \_\_\_\_을 만들어 주었고 미가는 \_\_\_\_과 \_\_\_\_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_\_\_\_으로 세웠다.(1-5)

2. 유다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이 거할 곳이 없어 에브라임에 와서 미가의 집에 오자 미가는 그에게 샅을 주고 자기 집의 \_\_\_\_으로 고용했다.

3. 그때까지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_\_\_\_지파는 거주할 땅을 정탐하기 위해 \_\_\_\_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이들은 가던 중 미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온 \_\_\_\_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에게 자기들의 정탐활동이 성공할 것인지를 물었고 그 제사장은 그렇다고 대답해 주었다.(18:1-6)

4. 이 다섯 명의 정탐꾼이 \_\_\_\_에 도착했는데 그 백성들은 \_\_\_\_없이 거하여 \_\_\_\_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고 그 땅에는 \_\_\_\_가 없어서 억울한 일이 없고 \_\_\_\_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어 상종하는 자가 없었다.(7)

5. 다섯 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단지파는 군인 \_\_\_\_명을 동원하여 라이스 땅 정복을 나섰다. 가던 중 미가의 집으로 가서 \_\_\_\_, \_\_\_\_, \_\_\_\_과 \_\_\_\_을 취하였고 레위 소년 제사장에게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_\_\_\_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고 해서 그도 데리고 갔다.(14-20)

6. 늦게 집에 돌아온 미가가 이를 알고 단 자손을 따라가서 항의를 했지만 단 사람들의 협박에 말도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7. 단 지파는 \_\_\_\_를 정복하여 성읍을 건축하였고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_\_\_\_세웠으며 모세의 후손인 정통 레위인 제사장까지 자기 지파 내에 두게 되었다.(27-30)

8. 미가, 레위 소년, 단 지파가 각각 범한 죄가 무엇인가?

9. 이때는 이스라엘에 \_\_\_\_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_\_\_\_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17:6)

성경문답지(사사기19/2016-34) \_\_\_\_구역 성명:

1. 17-18장의 레위인의 타락에 연이은 레위인 타락 이야기:\_\_\_\_\_ 산  
지에 사는 어떤 \_\_\_\_\_사람이 유다 \_\_\_\_\_에서 \_\_\_\_\_을 취하였다.(1) 그  
런데 그 첩이 \_\_\_\_\_을 한 후 그 아버 집으로 돌아갔다.(1-2)

2. 녀 달 후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의 장인의 집으로 찾아갔  
는데 그 장인이 사위를 \_\_\_\_\_해 주었다.(3) 거기서 \_\_\_\_\_일을 머물다가 더 이  
상 머물지 않고 길을 나섰다.(4-9)

3. 레위인 일행은 \_\_\_\_\_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좋은 거기에 머물자고 했지  
만 레위인은 그 성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 아니라는 이유로 \_\_\_\_\_로  
갔다. 그곳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10-14)

4. 여부스(예루살렘) 땅은 \_\_\_\_\_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다. 그런데 왜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안 되고 이방인의 땅이 되었는가?(삿1:21)

5. 기브아 사람들은 아무도 레위인 일행을 영접해 주지 않았다. 단지,  
\_\_\_\_\_ 사람으로 그곳에 와서 살고 있던 늙은 노인이 그들을 영접해 주었  
다.(16)

6. 노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쉬고 있을 때 \_\_\_\_\_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끌  
어내어 그와 \_\_\_\_\_하려 하였다.(22)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어 주었고 그들은  
그녀를 밤새도록 욕보인 후 돌려보냈는데 결국 죽고 말았다.(22-26)

7.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_\_\_\_\_ 토막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고 그것을 본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_\_\_\_\_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고 하면서 큰 충격에 쌓였다.(27-30)

8. 이 장면은 \_\_\_\_\_과 \_\_\_\_\_와 같은 죄이다.(창19) 이 끔찍한 일이 일어  
난 기브아는 \_\_\_\_\_지파 소속의 땅인데(16) 기브아는 \_\_\_\_\_의 고향이다.  
(삼상10:26) 결국 사사기는 \_\_\_\_\_ 지파의 불순종(삿1:21)으로 시작해서  
그 지파의 남자들의 멸절과 회복 이야기로 끝난다.(20) 그런데 재미있게도  
\_\_\_\_\_이 없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등극한 첫 왕(사울)이 이 지파 출신이다.

9. 사사시대 말기의 영적 타락의 주범 4지파(17:1, 18:1, 19:1,16)

성경문답지(사사기20/2016-35) \_\_\_\_구역 성명:

1. 베냐민 지파의 만행을 심판하기 위해 \_\_\_\_에서 \_\_\_\_\_까지와 \_\_\_\_\_ 땅에서 칼을 빼는 보병 \_\_\_\_\_명이 \_\_\_\_\_에 모였다.(1-2)
2. 전국에서 모여 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건에 대한 그 레위인의 설명은 거짓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19장의 실제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가?(자신의 책임, 잘못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3. 레위인의 설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였고 하나 같이 베냐민을 치려하였다. 그러나 먼저 베냐민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레위인의 첩에게 만행을 저지른 그 \_\_\_\_\_을 내어 주어 죽이게 해달라고 했다.(11-13)
4. 11지파의 위의 제안을 베냐민 지파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결의하여 \_\_\_\_\_명의 군사들과 기브아의 물맷돌 던지는 왼손잡이 용사 \_\_\_\_\_명을 모집하였다.(14-16)
5. 1차 전쟁-11지파는 어느 지파가 맨 앞장 설 것인지 하나님께 여쭙었고 하나님은 \_\_\_\_\_지파가 앞장 설 것을 말씀하셨다.(18) 그런데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 \_\_\_\_\_을 죽였다.
6. 2차 전쟁-하나님의 인도를 받고도 전쟁에서 패배를 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여쭙었고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_\_\_\_\_명이 죽었다.(24-25)
7. 3차 전쟁-이에 이스라엘은 \_\_\_\_\_로 가서 저물도록 \_\_\_\_\_하고 \_\_\_\_\_와 \_\_\_\_\_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26) 전쟁을 하여 결국 베냐민 사람 \_\_\_\_\_을 죽였다.(35)
8. 베냐민 지파의 멸망은 범죄에 대한 댓가요 하나님의 심판이며, 11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그러나 지파의 거의 모든 남자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데 대해 1)베냐민 지파의 잘못과 2)11지파의 잘못이 각각 무엇일까?
9. 형제의 범죄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갈5:15, 6:1, 고전10:12)

성경문답지(사사기21/2016-36) \_\_\_\_구역 성명:

1. 11지파는 레위인의 첩 사건의 주범인 베냐민 지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모든 남자들이 죽고 \_\_\_\_명만 남았고(20:47) \_\_\_\_에 모여 자기들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_\_\_\_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1)

2. 이스라엘 중에 다시는 이런 끔찍한 죄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그로인해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어지고 자칫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현실 앞에 11지파는 여호와 앞에서 \_\_\_\_을 하며 후회(회개) 하고 \_\_\_\_을 쌓고 \_\_\_\_와 \_\_\_\_를 드렸다.(2-4)

3.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살리기(살아남은 600명 남자들의 아내감 구해주기)에 나섰지만 문제는 그들이 이미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기 딸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기로 여호와로 \_\_\_\_를 한 상태이다.(7) 이것은 불필요하고 헛됨에 저지른 지나친 맹세였다.

4. 일차적으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를 공격하여 그곳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 아내로 줄 계획을 세웠는데 \_\_\_\_에서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8)

5. 11지파는 큰 용사 \_\_\_\_을 선발하여 그곳 사람들을 죽이고(이것 또한 그들의 근거 없는 맹세의 결과) 처녀 \_\_\_\_명을 사로잡고 림몬 바위에 있던 베냐민 남자들에게 \_\_\_\_를 공포하고 처녀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보내 주었다.(10-14)

6. 야베스 길르앗(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지파)는 왜 베냐민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므낫세-부친:요셉, 할머니:\_\_\_\_, 베냐민-모친:\_\_\_\_)

7. 400명의 아내는 구했지만 여전히 \_\_\_\_명이 부족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베냐민 남자들에게 방법을 제안했다. 해마다 여호와와 절기(유월절 아니면 초막절)에 \_\_\_\_ (당시 성소가 있던 곳)에 여인들이 무도하러 나오는데 그 때 그 여인들을 붙들어가라고 했다.

8. 본문은 1)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없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2)\_\_\_\_를 꺾지 않으시고 \_\_\_\_을 꺾지 않으시고(이사야 42:3) \_\_\_\_ 중에도 \_\_\_\_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준다.(합3:2)